

2023학년도

제2차 MJU소통위원회 회의록



▣ 일 자 : 2023. 11. 22.(수) 11:00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

	간 사	위 원 장
결 재		

명 지 대 학 교

2023학년도 제2차 MJU소통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23. 11. 22.(수) 11:00
-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 (화상회의)
- ▣ 참석위원 : 박재현, 장영순, 김한승, 주성일, 김정현, 김용달, 이명우, 최시온, 우성희 (이상 9명)
- ▣ 불참위원 : 안정국, 최현선 (이상 2명)
- ▣ 성 원 : 재적위원 11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여하여 성원됨.
- ▣ 안 건 : 자유토론

▣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 위원장이 2차 MJU소통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간사가 재적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알림

나. 안건 논의

- 홈페이지에서 MJU소통위원회 안건 공모를 하였으나 접수 건이 없어 자유토론으로 진행할 것을 위원장이 설명함. 지난 1차 MJU 소통위원회 논의안건에 대하여 후속조치 보고를 요청함
- 간사 : 지난 1차 소통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보고하겠음
 - ✓ 1차 소통위원회 논의 사항
 - 학생회 별도의 공간위원회 구성(안): 해당 부서에 의견 전달하였으나 올해에는 구성하기 어렵고 내년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 인문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자격증 지원금을 장학 사업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 인문학생지원팀 확인 결과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장학금 지급되어 시행되었음
 - 총장님과의 정기적 소통 창구 요청: 정기적인 면담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임

- 세부 성적 공개 요청 및 성적 입력 기간과 이의 신청 기간 분리: 현 시스템에 세부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2학기에 도입되어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음. 성적 입력 기관과 이의 신청 기간도 분리되어 있으며 성적 입력 기간 내에 성적 입력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 평가에 성적 입력 지연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위원장 : 그 동안 소통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여 일부라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음. 이 외에도 학생회에서 법인 회생 진행 상황에 대해 법인 재정팀장이 와서 설명회 자리도 마련하였었음. 그리고 후생복지 총괄위원회에도 학생 대표가 정식 위원회는 아니지만 배석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해 주었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주고, 본부에서는 적극 반영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함. 오늘 이 자리에서 부담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바람.
- ○○○ 위원 : 2023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사안과 현재 학내 주요 안건 두 가지가 있어서 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은 명당프로젝트로 교내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었음. 총무시설팀과 학생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학우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 사업이었음. 오늘 논의되어야 할 2가지 안건이 있음. 첫 번째는 인문캠퍼스 기숙사 뒤 쪽 후문 폐쇄 관련 안건이고, 두 번째 안건은 통폐합 관련 질의임. 월요일 인문캠퍼스 기숙사 쪽 후문이 폐쇄되었으며 이는 흡연 관련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학교 본부에서 조치한 사안임. 현재 흡연하는 학우는 여전히 존재하는 등 흡연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나 후문 거주하는 통학생들의 불편만 가중된 상황임. 현 상황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후문 폐쇄 행정처리는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총학생회에서는 행정처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임. 공문 발송 전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함. 통합 관련 질의는 학사구조 개편 시행 계획과 학우 보호 계획 방안 등을 전달드리고 명지전문대 학생들이 통합 명지대학교로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장 구분을 요구하는 안을 전달드리고

싶음.

- 위원장 : ○○○ 위원께서 지금 두 가지 학내 안건을 말씀해 주셨음. 첫 번째는 기숙사쪽 후문 폐쇄 관련하여 후문 폐쇄를 하였음에도 흡연이 감소하는 효과가 크지 않으니 다시 개방을 해달라는 의견인 것으로 보임. 이를 ○○○ 위원에게 재차 확인함.
- ○○○ 위원 : 후문 폐쇄는 학우들과 협의 하에 이루어진 행정 처리가 아니었음. 학생지원팀과 총무시설팀에서 흡연하는 학우들을 막기 위해 후문 폐쇄를 강행하였으며, 학우들의 입장이 반영되지는 않았음.
- 위원장 : ○○○ 위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위원 : 후문 인근 지역 주민들의 흡연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학생들의 대다수 의견도 후문 폐쇄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총학생회와 논의된 의견이라고 생각했었음. 저 역시도 후문 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피해 등이 걱정되어 기숙사에 흡연 부스 설치 등을 논의했었는데, 그 경우 흡연하는 학생들과 인근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를 피울 수 있어서 기숙사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다방면으로 고민한 결과로 이 문제는 행정 편의 문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음. 학생들과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음. 이 문제는 얼마든지 다시 원점부터 검토를 시작할 수 있음. 다만 현재 기숙사 학생들의 민원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음. 흡연 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음.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일단 후문 폐쇄를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대처하기로 총장님께 보고드리고 시행을 한 내용임. 학생들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 위원장 : ○○○ 위원께서는 후문 폐쇄에 따르는 민원이나 문제를 살펴보고 일정 기간 이후에 총학생회와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셨음. 이 문제는 금일이나 내일 중으로 인문 총학생회와 사무지원처장, 총무시설팀장께서 따로 미팅을 잡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함.
- ○○○ 위원 : 금일 중으로 미팅을 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소통위원회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차회 소통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람. 두 번째 안건은 ○○○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람

- ○○○ 위원 : 통합 관련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신청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임. 통추위에 학생회도 들어와 있음. 하지만,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로 어떠한 얘기를 전달받지 못했음. 신청서 내 숫자만 변경해 달라는 요청들만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통합추진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임. 오늘 질의 주신 내용들도 모두 통추위의 의결 사항이기에 통추위가 열리게 되면 학생들과 논의를 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가 1대 1로 통합하는 것임. 통합을 통해 우리 대학이 얻는 이점도 많음. 그래서 일부분은 우리가 양보하고 일부분은 전문대가 양보하는 부분이 있음.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진행할 것이고, 학칙에 반영이 되어야 하므로 그 때에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통합준비위원회(가칭)에서 진행이 될 것임. 통합준비위원회(가칭)에 당연히 학생회 참여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치게 됨. 대학평의원회에도 학생 평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음.

- 위원장 :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만나서 논의하고 있음. 통합이 되고 새로운 학칙이 개정될 때 다시 논의가 될 내용임. 부가 설명을 하면 지난 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로 승인 절차가 남아있음.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은 새로운 학칙에 들어갈 내용으로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을 거치고 통합준비위원회(가칭)에서 논의가 될 것임.

- ○○○ 위원 : 현재 대학원 어떤 과에 중국 학생이 약 18명 정도 됨. 대학원 학칙에는 대학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만 가르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함. 전공별로 교수가 적은 과는 교수가 3명인데 중국 유학생 18명의 논문이나 기타 지도 등등을 다 봐야 하고 학부생은 따로 지도

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힘든 상태임. 경임이나 객원 교수님 중 박사 학위 소지자에 한해 중국 학생들 논문 지도가 가능하게 규정이 바뀌는 것 등이 고려되었으면 함. 앞으로 중국 학생 전용 트랙이 확대되고 할 경우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 위원 : 지도교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임교원이 맡게 되어있지만 비전임교원이 가능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규정을 확인해 보겠음.
- ○○○ 위원 : 규정 개정은 학장님을 통해 대학원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음.
- ○○○ 위원 : 대학원 교학처와 규정이나 기타 사항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람.
- ○○○ 위원 : 학장님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 ○○○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안건은 학사 관련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행정 처리는 학사와 대학원 교학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 ○○○ 위원 : 1년 동안 명진당 공사, 함박관 리모델링, 버스 증차, 해외 탐방 등 한정된 예산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해 주신 것 같아 감사의 말씀을 드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위원장 : ○○○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보직교수로 보람을 느낌. 학교라는 곳의 존재 이유는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인성 잘 다듬고 학교 생활 잘하게 만들어서 사회에 잘 진출하도록 하는 것임. 학교들이 15년째 등록금 동결로 어려운 상황임. 혁신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외부 지원을 끌어오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차 MJU소통위원회를 마치겠음.

2023. 11. 22.

작 성 자 : 기획예산팀장 안 경 훈 ㉠